

##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김진화<sup>1)</sup> 배병훈<sup>2)</sup> 박동재<sup>3)</sup> 이동귀<sup>†</sup>

본 연구는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대처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30대 중 3개월 이상 교제 중인 10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269개의 진술을 도출하였으며, 원형 분석과 두 차례의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75문항의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후 30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구조 방정식 모형(ESEM)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수습, 거리두기, 심사숙고, 순종, 이성적 대처, 부정성 표출의 6요인 32문항이 도출되었다. 특히 긍정적 수습은 상호의존이론의 관점에서 관계 유지를 위한 능동적 투자 행동으로 해석되었으며, 심사숙고는 인지적 성찰과 정서적 처리를 포함하는 반응 양상으로서 기존 척도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았던 신중한 대처 과정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은 기존 갈등 관련 척도, 공감, 의사소통, 성격 특성과 이론적으로 일관된 상관을 보였으며, 관계 만족도와 관계 안정성을 기준으로 준거 및 증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4주 간격의 재검사를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해외 척도의 문화적 한계를 보완하고 메신저 및 SNS 등 현대적 소통 맥락을 반영한 한국형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미혼 연인, 연인관계, 갈등대처, 원형 분석, 탐색적 구조방정식

\* 본 논문은 김진화(2024)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1) 연세대학교 AI마인드 연구소 전문연구원

2) 명지대학교 심리재활학과 객원교수

3)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생

† 교신저자 :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위당관 612호

Tel: 02-2123-2437, Email: lee82@yonsei.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간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사회적 존재이며, 연인관계는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발달적 맥락으로 기능한다. 특히 청년기에는 연인관계 경험이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Arnett, 2000; Erikson, 1968), 개인은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확장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Fincham & Cui, 2010). 청소년기의 연인관계가 비교적 탐색적 성격을 지닌다면, 성인기의 연인관계는 점차 친밀성과 헌신을 중심으로 심화되며(Shulman & Connolly, 2013), 이 과정에서 갈등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나타난다(Mayer, 2000). 연인관계에서 갈등은 신념, 가치, 욕구 및 기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Cahn, 1992; Ting-Toomey, 1985), 분노나 좌절감,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Sanford, 2007). 그러나 갈등 연구에서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것은 갈등의 존재 자체보다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즉 갈등대처 방식이다(Gottman, 1993). 선행연구에 따르면 갈등대처 방식은 관계 만족도와 안정성,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며(Whisman & Unbelacker, 2006),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룰 경우 관계는 오히려 강화되고 친밀감이 증진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이지연, 서수균, 2011; Siegert & Stamp, 1994). 반면 갈등을 적절히 다루지 못할 경우 관계에 균열을 초래하고(Laurenceau et al., 2005),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담을 찾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Lebow et al., 2012). 따라서 연인관계 갈등대처를 신뢰롭게 측정하는 일은 관계 연구뿐 아니라 상담 실제에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 시기의 지연과 비혼 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19만 1,600건에 이르렀으며(통계청, 2023), 결혼을 필수적인 삶의 단계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하는 가치관 또한 확산되고 있다(이상림, 2018; 최효미 외, 2016).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서구 사회에도 초혼 연령 상승과 동거 관계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Smock & Schwartz, 2020; Willoughby & Hall, 2015). 더불어 최근 청년층의 연인관계에서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환경은 갈등의 경험 방식과 갈등 이후의 대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Kwok & Wescott, 2020; Schade et al., 2013). 이러한 변화는 현대 청년의 연인관계를 기존 관계 모델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관계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 맥락에 적합한 방식으로 갈등대처를 측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동안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갈등해소(conflict settlement), 갈등대처(conflict coping) 등 다양한 개념을 중심으로 대인관계 갈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김진, 오은주, 2022; 최유진, 정태연, 2021; Courtain & Glowacz, 2019; James-Kangal & Whitton, 2019). 특히 연인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갈등대처 전략이 관계 만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예: 고수연, 박정윤, 2024; 김정은, 2018; 연수진, 서수균, 2013).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 갈등대처를 측정하는 도구는 관계 맥락의 특수성이나 최근의 관계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연구의 공백은

갈등대처 현상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기보다 현대 청년의 연인관계 맥락에 적합한 측정 도구의 부재에 있다. 갈등대처를 측정하는 척도는 단순히 대처 행동의 빈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반응을 어떠한 관계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척도가 전제로 하는 관계 맥락과 그 역동은 측정 내용의 적합성과 연구 결과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연인관계 갈등대처 연구에 활용되어 온 측정 도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몇 가지 공통적인 한계가 확인된다. 첫째, 관계 맥락의 불일치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부부·가족 관계를 전제로 개발된 척도(예: Conflict Tactics Scale, 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s Scale)나 조직 갈등 맥락을 기반으로 한 척도(예: 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II)가 연인관계 연구에 활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예: 김민정, 조민아, 2017; 김윤아, 2019; 연수진, 서수균, 2013). 그러나 관계 유형이 달라질 경우 갈등의 의미와 대처 행동의 기능 또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측정 내용이 연인관계 맥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연인관계는 높은 정서적 친밀성과 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관계로, 이러한 특성은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의미와 기능을 다른 관계 맥락과 질적으로 다르게 만들 수 있다(Reese-Weber et al., 2015; Stanley et al., 2002).

둘째, 심리측정학적 검증 절차의 일관성 문제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기존 척도를 번안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나, 요인구조의 안정성이나 구성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보고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동일한

척도라 하더라도 문항 수정이나 하위요인 구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연구 간 구조적 검증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최규련(1994)의 연구에 활용된 척도는 여러 스트레스 대처 관련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된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으나, 후속 연구들에서는 문항 수정이나 하위요인 구성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조적 검증 절차는 연구마다 보고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예: 안창현, 김진이, 2008; 유희남, 김영희, 2011; 조유리, 김정신, 2000). 또한 Hong(2006)이 번안한 갈등해결 전략 척도(ROCI-II)의 경우 역번역 절차를 거쳐 활용되었으나, 구성타당도 검증 절차에 대한 보고는 제한적으로 제시되었다. Arellano와 Markman(1995)의 척도(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s Scale; MADS)를 번안한 김나리(2002)의 척도는 국내 연인관계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판에서는 원척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이 이루어졌고, 개발 및 타당화 표본 또한 소규모의 특정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청년 연인관계 맥락으로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더라도 척도의 수정 방식과 타당화 절차의 수준에 따라 하위요인 구조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연인관계 갈등대처를 보다 일관된 기준에서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타당화 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시대적 및 사회문화적 맥락 반영의 한계이다. 현재 연인관계 갈등대처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척도의 상당수는 1980-1990년대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된 도구들로, 당시의 관계 맥락과 의사소통 환경을 전제로 구성되었다(예: Arellano & Markman, 1995; Rahim,

1983; Straus, 1979). 그러나 최근 청년층의 연인관계에서는 디지털 매체 기반의 상호작용이 일상화되면서 갈등이 경험되고 표현되는 방식과 갈등 이후 나타나는 대처 행동의 양상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Kwok & Wescott, 2020; Schade et al., 2013). 이러한 변화는 기존 척도 문항이 현재 청년층의 실제 갈등 경험과 대처 행동을 충분히 포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갈등대처는 문화적 규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Ting-Toomey, 1985),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된 문항이 한국 청년의 관계 경험을 적절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연인관계 갈등대처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현대 한국 청년의 연인관계 맥락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개발되고 타당화된 측정 도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청년기 연인관계는 결혼과 같이 제도적으로 규정된 관계와 비교할 때 관계형성과 유지 방식에서 보다 유동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측정 도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연인관계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처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고 그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연인관계 경험에 기반한 예비 문항을 도출하고,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SEM)을 활용하여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였다. 또한, 하위요인 간 관계, 수렴 및 변별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타당도 증거와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 방 법

###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연인관계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처행동을 수집하여 문항을 개발하였고, 이후 내용타당도 검토와 문항 분석을 거쳐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어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을 활용하여 척도의 내적 구조를 검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신뢰도 및 다양한 타당도 지표를 통해 척도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검증하였다.

###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예비 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교제 중인 20-30대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후 예비 척도의 요인구조 검증 및 타당도 확인을 위해 별도의 표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개방형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남성 49명(49.0%), 여성 51명(51.0%)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20-24세 24명(24.0%), 25-29세 26명(26.0%), 30-34세 24명(24.0%), 35-39세 26명(26.0%)으로 비교적 고르게 구성되었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가 97명(97.0%), 양성애가 3명(3.0%)이었고, 교제 기간은 3-200개월( $M=35.29$ ,  $SD=36.44$ )이었다. 관계 만족도(1-7점)는 평균

5.48( $SD=1.14$ )이었으며, 21명(21.0%)은 동거 중 이었고, 2명(2.0%)은 이혼 경험이 있었다. 직업은 직장인이 70명(70.0%), 대학생 14명(14.0%), 취업준비생·무직 10명(10.0%) 순이었다.

예비 척도의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표본은 국내에 거주하며 3개월 이상 연인 관계를 유지 중인 만 20-39세 미혼 성인 300명이었다. 참여자 성별은 남성 151명(50.3%), 여성 149명(49.7%)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20-24세 68명(22.7%), 25-29세 82명(27.3%), 30-34세 78명(26.0%), 35-39세 72명(24.0%)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개방형 설문은 조사에 앞서 연구 목적, 절차, 예상 소요 시간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설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연애 경험에 관한 문항과 갈등대처 행동을 탐색하기 위한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방형 응답에 앞서 갈등 및 갈등대처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갈등 주제 가운데 대표적인 항목을 제시하여 회상을 돕도록 하였다(Reese-Weber et al., 2015). 참여자들은 기억에 남는 갈등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뒤, 해당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처행동 세 가지를 행동 중심으로(각 30자 이상) 기술하도록 안내받았으며, 이를 통해 총 300개의 갈등대처 진술을 수집하였으며, 이후 분석 과정에서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하였다.

#### 측정 도구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갈등대처와 이론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함께 측정하였다. 갈등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방식 및 대처 행동과의 관련성을 위

해 기존 갈등대처 및 갈등해결 전략 척도, 연인관계 내 의사소통과 공감, 이별 전략과 관련 척도를, 개발하는 척도가 개인의 일반적 성향이나 응답 편향과 구별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성격 특성과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인관계의 적응적 기능을 반영하는 관계적 준거 변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인관계 만족도와 관계 안정성 척도를, 개인의 심리적 적응 수준과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행복, 우울 및 불안 척도를 포함하였다.

####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예비 문항)

본 연구에서 개발한 75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연인관계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을 묻고,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75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척도는 문항 풀 수준에서 사용되었으며, 하위요인 구조는 요인분석(ESEM)을 통해 확정하였다. 확정된 최종 척도 및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결과 부분에 제시하였다.

#### 갈등해결전략 척도(Rahim Organizational

#### Conflict Inventory-II; ROCI-II)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수렴 및 증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Rahim(1983)이 개발하고, Wilmot과 Hocker(2001)가 수정하고, Hong(2006)이 변안한 갈등해결전략 척도(ROCI-I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대인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을 측정하며, 회피, 지배, 타협, 양보, 통합의 5요인에 대해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의 척도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드물게, 5=매우 자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해당 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alpha$ )는 회피 .63, 지배 .83, 타협 .75, 양보 .85, 통합 .82였다.

#### 갈등대처행동 척도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수렴 및 증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김지현(2006)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성적 대처, 긍정적 감정표현, 외부도움 요청, 회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의 5개 하위요인(총 30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처행동의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게 보고된 외부도움 요청 하위요인을 제외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alpha$ )는 이성적 대처 .73, 긍정적 감정표현 .76, 회피 .73,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87이었다.

#### 연인용 대인관계 반응 척도: 커플 공감 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 IRIC)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대인관계반응 척도(IRI)를 기반으로 개발된 커플 공감 척도(이주열, 이영호, 2017)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형 14문항(조망수용, 공감적 관심 각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공감 특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미혼자를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해 원척도의 아내/남편/부부 용어를 '연인'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내적 합치도( $\alpha$ )는 .80이었고, 하위요인은 조망수용 .75, 공감적 관심 .65였다.

####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Short Form; CPQ-SF)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Christensen과 Heavey(1990)의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은(1998)의 번안본을 기반으로 임아영(2022)이 수정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연인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행동을 측정한다. 9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언제나 그렇다) 상에서 평정되며, 건설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손상적 의사소통 및 요구-철회)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의사소통 패턴이 더 자주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건설적 의사소통의 내적 합치도( $\alpha$ )는 .78,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87이었다.

#### 이별전략 질문지(The Korean Breakup Strategies Questionnaire; BSQ-K)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Baxter(1982)가 개발하고 이후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타당화된 BSQ-K(Lee et al., 2018)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 4개 하위요인(회피/철회, 긍정적 어조/자기비난, 직면, 간접적 조종)으로 구성되며,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이별전략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alpha$ )는 .69~.91 범위였다.

#### NEO 성인용 성격 검사 단축형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성격 특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안현의와 안창규(2017)의 척도

를 문희정과 안현희(2022)가 단축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친화성과 신경증 각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 특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alpha$ )는 친화성 .78, 신경증 .90이었다.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Korean Short-version of Social Desirability Scale; SDS-9)**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Stöber(2001)가 개발하고 배병훈 등(2015)이 번안한 한국판 단축형(SDS-9)을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alpha$ )는 .68이었다.

**연인관계 만족도**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준거관련 및 증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이경성과 한덕웅(2005)의 연인관계 만족도 척도(9문항)를 사용하였다. 7점 리커트(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alpha$ )는 .90이었다.

**연인관계 안정성**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준거관련 및 증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관계의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은희(2004)의 결혼

안정성 척도를 임아영(2022)이 수정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되며, 문항의 내용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관계를 와해시키려는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 연인이 된 것을 후회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문항, 현재의 연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연인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유대감을 경험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alpha$ )는 .92였다.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준거관련 및 증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3요인, 총 9문항으로 구성되며,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alpha$ )는 .90이었다.

**단축형 간이정신진단검사(Brief Symptoms Inventory-18; BSI-18)**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준거관련 및 증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 및 불안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SCL-90-R(Derogatis, 1993) 및 BSI(Derogatis & Spencer, 1993)의 단축형인 BSI-18(Derogatis & Savitz, 2000)을 사용하였다. BSI-18 한국판(박기쁨 외, 2012)은 우울, 불안, 신체화의 3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

며,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0=전혀 없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alpha$ )는 우울 .88, 불안 .89로 나타났다.

### 분석 절차

예비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원형 연구 방법(prototype research methodology)의 문항 생성 단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원형 연구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개념의 전형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Li, 2003; Rosch, 1978),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처행동을 수집하는 데 활용하였다. 개방형 설문에서 수집된 응답 중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진술을 대상으로 연구팀이 내용 유사성에 따라 분류 및 명명하였고, 출현 빈도를 산출하였다. 이후 문항의 적절성, 평균 점수, 출현 빈도 및 내용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예비 척도를 확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에서는 문항별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였으며, Lynn(1986)의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I-CVI .78 이상을 문항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예비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 왜도 및 첨도 등을 검토하여 문항의 변별력과 반응 분포를 확인하였고, 선별 기준을 충족하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요인분석 적합성은 FACTOR 10.10(Ferrando & Lorenzo-Seva, 2017)을 사용하여 Bartlett의 구형

성 검증과 KMO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평행분석을 통해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이후 Mplus 7.0(Muthén & Muthén, 2012)을 이용하여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SEM)을 실시하였다. ESEM은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의 장점을 결합한 접근으로 문항의 교차부하를 허용하면서도 요인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탐색할 수 있어 척도 개발 초기 단계의 내적 구조 검증에 적합한 방법으로 보고되어 왔다(이순목 외, 2016; Marsh et al., 2009). 모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은 연속형 지표에 기반한 요인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며, 표본 크기가 충분한 경우 모수 추정의 효율성과 모형 비교의 일관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적 구조 검증에 적절한 추정 방법으로 간주된다(Kline, 2016). 다음으로 요인 간 상관을 허용하는 사각회전 방법인 GEOMIN 회전을 적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심리적 구성개념 요인들이 상호 독립이라기보다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적 전제에 부합하며, 동시에 GEOMIN이 교차부하를 과도하게 0으로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단순구조에 근접한 해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어 ESEM에서 자주 권고되는 회전 방식이기 때문이다(Asparouhov & Muthén, 2009).

요인 수 결정은 평행분석 결과와 모형 적합도 지수(CFI, TLI, RMSEA, SRMR), 요인의 이론적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요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합도가 기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적합도 향상뿐 아니라 (i) 각 요인의 문항 수가 충분한지, (ii) 주부하량이 해석 가능한 수준으로 확보되는지, (iii) 교차부하량이 과도하

게 나타나지 않는지, (iv) 요인 간 상관성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성이 훼손되지 않는지 등을 함께 점검하였다(Kline, 2016; Marsh et al., 2009). 분석 과정에서는 목표회전(target rotation)을 적용하였는데, 이 때 통계적 수정지수에만 근거하기보다 문항 내용의 중복(유사 표현, 동일한 상황/행동을 묻는 문항 등)과 같은 방법효과(method effect)가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 범위에서 하여 분석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측정오차 간 상관을 허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09; Podsakoff et al., 2012).

표본 크기의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요인분석에서 약 300명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형 추정을 위한 적절한 규모로 간주되며(Kline, 2016; Tabachnick & Fidell, 2019), 문항당 최소 5~10명의 표본 확보가 권장된다는 기준을 함께 고려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Hair et al.,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총 41개의 예비 문항에 대해 300명의 표본을 확보하여(문항당 약 7.3명) 요인 구조 추정과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최종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와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통해 검증하였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준거타당도는 SPSS 21.0을 활용한 상관분석으로, 증분타당도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 결 과

### 개방형 응답 정제 및 문항 도출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총 100명의 참여자

로부터 300개의 갈등대처 진술이 수집되었다. 응답은 완전한 문장부터 단문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서술형 문항의 특성상 일부 오타자와 표현의 비일관성이 관찰되었다. 연구팀은 참여자의 표현이 지닌 핵심 의미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문장 구조를 정제하였으며, 질문의 초점에서 벗어나거나 행동 기술로 보기 어려운 응답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31개의 응답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269개의 진술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269개의 진술문은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 행동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하나의 진술에 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중복 분류를 허용하였다. 연구자 간 논의를 거쳐 50개의 하위유형으로 통합한 뒤, 의미적으로 유사한 범주를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10개의 상위유형을 도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사과하기'와 '연인을 이해하려는 시도하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차분하게 대화하기, 감정 설명하기 등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행동이 비교적 자주 나타났다. 반면, 거리두기나 회피적 행동 역시 일부 확인되었다. 각 행동 유형과 응답 빈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 기초 문항 선정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기초 문항 선정을 위해 기존 갈등대처 척도(예: ROCI-II; ESCT; CRBQ 등)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최종 척도는 약 30문항 내외가 적절하며, 문항 개발 단계에서는 본조사 문항 수의 3-5배 수준의 예비 문항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된다(DeVellis,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약 150문항을 1차 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1. 행동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갈등대처 행동(총 269문항)

성격	10가지 상위유형	50가지 하위유형 (빈도)
자기중심	연인 이해시키기	나의 감정 설명하기 (15), 나의 입장 표명하기 (7), 나의 생각을 글로 정리 및 전달하기 (11), 설득하기 (2)
	단도직입적 의사표현하기	연인에게 요청 및 요구하기 (7), 연인의 문제 지적하기 (4)
	공격적 자기표현하기	부정정서 표출하기 (9), 수동공격적 행동하기 (4) 경쟁적으로 대응하기 (4)
연인중심	연인 이해해보기	연인을 이해하려는 시도하기 (19), 공감, 경청 및 존중하기 (9), 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7), 다름 수용하기 (5), 연인의 의도 파악하기 (5)
	연인 맞춰주기	기분 풀어주기(긍정정서 유도) (13), 연인의 뜻에 순응하기 (8), 연인에게 시간주고 기다리기 (7), 눈치 및 분위기 살피기 (6), 달래주기(부정정서 완화) (5), 반성 및 후회하는 모습 보이기 (3)
관계중심	조절하기	차분하게 대화하기 (16), 자기검열 행동하기 (9), 나의 정서조절하기 (8), 타임아웃 갖기 (8), 비대면 소통 지향하기 (4), 비대면 소통 자제하기 (4)
	화해 시도하기	사과하기 (19), 식사자리(음식, 술) 활용하기 (7), 신속하게 해결하기 (8), 연인과 스킨십하며 소통하기 (6),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4), 잘못 인정하기 (4), 긍정적인 것에 초점두기 (2), (R)갈등해결 중도 포기하기 (7), (R) 이별 통보하기 (4)
	문제해결 시도하기	갈등의 원인 탐색하기 (9), 문제해결에 집중하기 (8), 협상하기 (7), 외부 자원(지인, 온라인) 활용하기 (4), 초점유지 대화하기 (4), 오해 풀기 (4)
	갈등 예방하기	재발 대책 세우기 (5), 갈등 예방적 행동하기 (3)
회피중심	거리두기	연인과 잠시 떨어져 지내기 (10), 연인 및 문제 회피하기 (7),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 침묵하기 (6), 대화주제 전환하기 (6), 기분전환 활동하기 (6), 참고 넘어가기 (6), 방치하기 (4)

연구팀은 개방형 설문에서 도출된 269개 진술을 문항 형태로 정리한 뒤, 각 문항의 적절성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적절하지 않다, 5=매우 적절하다)로 평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4점 이상인 82문항은 포함하고, 3점 이하

71문항은 제외하였다. 다만 평정 점수만으로는 구성개념의 포괄성이 제한될 수 있어 문항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개의 상위유형, 47개의 하위유형에 걸쳐 총 150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갈등 예방하

기' 상위유형과 '갈등해결 중도 포기하기', '재발 대책 세우기', '갈등 예방적 행동하기' 하위유형은 제외되었다.

### 내용타당도 검증

선정된 150개 문항에 대해 상담심리전공 교수 2인, 박사 3인, 상담심리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각 문항이 20-30대 청년의 연인관계 갈등대처를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적절하지 않다, 5=매우 적절하다)로 평정하였으며, 문항의 명확성, 표현의 자연스러움, 이중 의미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I-CVI 기준에 미달하거나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여 총 97개의 1차 예비문항을 확정하였다.

이후 수정된 97개의 문항에 대해 별도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I-CVI 값이 .78 이상인 문항을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의미가 유사하거나 표현만 상이한 문항은 대표 문항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22개 문항이 추가로 제외되어 최종 75개의 예비문항이 확정되었다. 이후 국문학 전공자 1인과 상담심리전문가 1인이 문장 표현을 검토·수정하였으며, 최종 예비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 선별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확정된 75개의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에 앞서 문항 수준의 통계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문항 평균, 표준편차 및 문항-총점 상관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탐색적 단계에서 문항의 변별력과 반응

분포를 점검함으로써 측정 정확도를 저해할 수 있는 문항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이다(DeVellis, 2016). 변별력 기준으로 평균 2점 미만 또는 4점 이상, 표준편차 .90 미만인 문항을 검토한 결과(탁진국, 2007), 문항 평균은 1.82~4.03, 표준편차는 .79~1.26의 범위를 보였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20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본 척도는 적응적 및 부적응적 대처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일부 문항은 총점과의 상관이 구조적으로 낮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항-총점 상관 기준을 .20으로 설정하고(Cristobal et al., 2007; Hobart & Cano, 2009; Kline, 2016), 기준에 미달한 14문항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초기 문항 풀에서 개념적 중복이나 측정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후 요인구조 탐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왜도와 첨도는 모든 문항에서 허용 기준(왜도  $\pm 2$ , 첨도  $\pm 7$ )을 충족하여 정상성 가정을 만족하였다(West et al., 1995). 결과적으로 75문항 중 34문항을 제외하고 41문항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 요인 수 결정 및 모형 선택

요인구조 탐색에 앞서, FACTOR 10.10을 사용하여 41개 예비문항의 요인분석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Bartlett 구형성 검증은 유의하였고( $\chi^2(820) = 3275.4, p < .001$ ), 표집 적절성 지수(KMO)는 .80으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은 Mulaik(2010)이 직관적 논리를 기반으로 제안한 발견법(heuristics)과 통계적 추론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발견법의 경우, FACTOR 10.10을 이용한 평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표 2. 41개 문항의 평행분석 결과

요인	고유치	분산비율	누적 분산비율	평행분석	
				경험자료 고유치	무선자료 고유치
1	6.68	16.30	16.30	6.68	1.87
2	3.88	9.46	25.76	3.88	1.76
3	2.47	6.02	31.78	2.47	1.68
4	1.98	4.82	36.60	1.98	1.61
5	1.74	4.25	40.85	1.74	1.56
6	1.59	3.89	44.74	1.59	1.51
7	1.29	3.15	47.89	1.42	1.46
8	1.21	2.94	50.84	1.38	1.42

주.  $N = 300$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경험자료 고유치가 무선자료 고유치보다 큰 경우이며, 이후부터는 경험자료 고유치가 무선자료 고유치보다 작아짐.

결과, 7번째 요인부터 무선자료의 고유치 분산(1.46)이 경험자료 고유치 분산(1.42)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6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immerman & Lorenzo-Seva, 201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 수를 4~8개 범위로 설정한 뒤, 추론적 접근을 통해 요인 수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8요인 모형을 비교하여 최적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최대우도법(MLE)으로 모수를 추정하고

GEOMIN 회전을 적용하였으며(이순목 외, 2016), 적합도는 CFI, TLI, RMSEA, SRMR로 평가하였다(CFI/TLI  $\geq$  .90, RMSEA/SRMR  $\leq$  .06; Hu & Bentler, 1999). 분석 결과, 요인 수가 증가할수록 전반적 적합도는 향상되었으나, 4-5요인 모형은 부적합하였고, 6요인부터 수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비록 8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으나, 평행분석 결과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표 3).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RMSEA 90% CI	SRMR
4요인	1231.25	662	.861	.827	.054	.049-.058	.059
5요인	1084.49	625	.888	.852	.050	.045-.054	.052
6요인	946.51	589	.912	.878	.045	.040-.050	.045
7요인	862.90	554	.924	.888	.043	.037-.049	.042
8요인	804.53	520	.930	.890	.043	.037-.048	.038

## 6요인 모형의 탐색적 회전 분석

6요인 모형이 선정됨에 따라 요인 수를 6으로 고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LE), 회전에는 GEOMIN을 적용하였다.

1차 분석 결과, 요인 1(고유치 = 6.69, 12문항)은 음식·유머·분위기 전환 등 갈등 상황에서 관계의 정서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화해를 시도하는 행동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요인은 이러한 문항 내용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긍정적 수습’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고유치 = 3.88, 10문항)는 대화 연기, 시간에 맡김, 연락 중단 등 갈등 해결을 즉각적으로 시도하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행동들로 구성되어 ‘거리두기’로 명명하였다. 요인 3(고유치 = 2.47, 5문항)은 글로 정리하거나 혼자 기록하기 등 감정과 생각을 정돈하고 숙고하는 행동들을 포함하여 ‘심사숙고’로 명명하였다. 요인 4(고유치 = 1.98, 4문항)는 저자세·참기·맞춰주기 등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순응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억제하는 행동들로 구성되어 ‘순종’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고유치 = 1.74, 5문항)는 갈등 원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조율을 시도하는 행동들로 구성되어 ‘이성적 대처’로 명명하였다. 요인 6(고유치 = 1.60, 5문항)은 불만 토로, 서운함을 은근히 표현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부정정서를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행동들을 포함하여 ‘부정성 표출’로 명명하였다. 이후 내적 구조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회전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부하량을 검토하였으며, 실질적 유의성을 고려해 .40 미만 문항을 제거하였다(Hair et al., 2019). 그 결과 9문항이 제외되었고, 최종적으

로 32문항을 투입하여 2차 탐색적 회전 분석 및 3차 목표회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목표회전 결과 및 ESEM 모형 수정

3차 목표회전 요인계수 행렬을 검토한 결과, 이전 탐색적 회전 단계에서 해석 가능한 수준(.30 이상)의 요인계수를 보였던 일부 문항들(요인 2의 31번(-.23), 74번(.27), 39번(.29), 요인 5의 71번(.27), 75번(.22), 요인 6의 59번(.20))은 목표회전 단계에서 .30 미만으로 나타나 해석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특정 문항들은 해당 요인에 유의하게 적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차 목표회전 결과에서 수정지수(MI)  $\geq 10$ 인 항목 중, 문항 내용의 반복(예: 11번과 42번의 ‘맛있는 음식’) 또는 근접 배치로 인한 방법효과(예: 33번과 34번)가 의심되는 측정오차 간 상관을 고려하여 ESEM을 실시하였다. 특히 11번과 42번 문항은 동일 표현으로 인한 방법효과 가능성이 높아 두 문항의 오차공분산을 자유모수로 설정한 수정모형 2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수정모형 2의 적합도( $\chi^2 = 525.71$ , CFI = .935, TLI = .906, RMSEA = .035 [90% CI = .029-.045])는 수정모형 1( $\chi^2 = 539.58$ , CFI = .933, TLI = .902, RMSEA = .036 [90% CI = .030-.047]) 대비 소폭 향상되었다. 또한 수정모형 2에서 MI  $\geq 10$ 이면서 방법효과가 의심되는 추가 오차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고, 요인부하량과 해석 가능성도 양호하여 수정모형 2를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표 4).

표 4. 최종 ESEM 추정 결과(수정모형 2)의 요인계수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43번	<b>0.72</b>	0.12	-0.11	0.06	0.03	-0.02
42번	<b>0.58</b>	0.08	-0.02	-0.10	0.18	0.00
31번	<b>0.60</b>	-0.22	0.04	0.05	0.05	0.17
74번	<b>0.67</b>	0.26	0.01	-0.15	0.05	-0.15
70번	<b>0.62</b>	-0.15	0.07	0.19	-0.19	0.16
9번	<b>0.62</b>	-0.18	0.13	0.03	-0.04	-0.03
33번	<b>0.66</b>	0.26	0.25	-0.05	-0.12	-0.15
22번	<b>0.56</b>	-0.12	0.17	0.10	-0.02	0.26
11번	<b>0.48</b>	0.12	-0.05	0.10	0.19	0.01
38번	0.11	<b>0.74</b>	0.03	-0.06	0.01	0.00
73번	0.08	<b>0.72</b>	0.05	0.19	0.02	-0.05
20번	-0.07	<b>0.58</b>	-0.01	0.14	-0.09	0.20
55번	-0.05	<b>0.57</b>	0.15	-0.02	0.06	-0.10
27번	0.20	<b>0.52</b>	0.01	0.07	-0.07	0.09
4번	0.07	<b>0.51</b>	0.05	0.20	-0.27	0.07
47번	-0.10	<b>0.44</b>	0.10	0.14	0.07	0.24
45번	-0.09	0.17	<b>0.81</b>	-0.02	0.29	-0.10
5번	0.01	-0.03	<b>0.59</b>	-0.03	-0.09	0.12
71번	-0.17	-0.01	<b>0.41</b>	-0.02	0.22	0.20
58번	0.28	-0.05	<b>0.48</b>	0.15	0.08	-0.15
18번	0.12	0.15	<b>0.49</b>	0.18	-0.04	0.04
6번	0.18	-0.03	<b>0.40</b>	-0.09	0.06	0.15
15번	-0.04	-0.02	0.10	<b>0.79</b>	0.06	-0.02
39번	-0.14	0.28	0.19	<b>0.57</b>	-0.13	-0.01
3번	0.06	0.16	-0.09	<b>0.56</b>	-0.13	-0.08
75번	0.20	-0.04	-0.10	<b>0.49</b>	0.22	-0.04
72번	0.23	-0.10	-0.13	0.22	<b>0.48</b>	0.01
65번	0.14	-0.07	0.06	-0.08	<b>0.54</b>	-0.05
59번	0.06	0.06	-0.10	0.10	<b>0.32</b>	0.26
34번	-0.07	0.25	-0.03	-0.11	0.16	<b>0.68</b>
10번	0.10	-0.18	0.14	0.05	-0.19	<b>0.61</b>
13번	0.14	0.34	-0.08	-0.24	-0.14	<b>0.40</b>

주. 요인계수가 .30 이상을 진하게 표시하였음.

### 최종 척도 확정

ESEM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6개 하위요인, 총 32문항을 최종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로 확정하였다. 각 요인은 긍정적 수습(9문항), 거리두기(7문항), 심사숙고(6문항), 순종(4문항), 이성적 대처(3문항), 부정성 표출(3문항)로 구성되었다(표 5).

###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 하위요인 간 관련성

연인관계 갈등대처의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표 6), 거리두기와 이성적 대처, 순종과 부정성 표출, 이성적 대처와 부정성 표출 간 상관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 간 상관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r = .13 \sim .38, p < .05$ ). 이는 갈등대처 방식들이 서로 독립적이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연관되면서도 구별되는 다차원적 구조를 지님을 시사한다.

#### 신뢰도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의 경우 갈등대처 하위요인들은 .67(순종) ~ .81(긍정적 수습) 범위로 나타났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60(부정성 표출) ~ .74(순종)로 확인되었다(표 7). 전반적으로 하위요인들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하위요인 중 '순종'의 경우 내적합치도가 .67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70 이상을 수용 가능한 신뢰도 기준으로 간주하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연인관계 갈등대처는 관계 맥락에 따라 나타나는 인지적·행동적 전략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문항 간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으며(Lazarus & Folkman, 1984), 실제

대처전략 척도(Brief COPE) 연구에서도 일부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70 미만으로 보고된 바 있다(Carver, 1997). 본 연구에서도 '순종' 요인의 요인부하량과 문항 내용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각 문항이 '순종'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표 8), 본 척도의 건설적 반응 요인(긍정적 수습, 이성적 대처)은 협력적·문제해결적 갈등대처 및 관계 기능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예: ROCI-II 타협-이성적 대처  $r = .63$ , 통합-이성적 대처  $r = .56$ ), 거리두기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예: 건설적 의사소통-거리두기  $r = -.40$ ). 반면, 거리두기와 부정성 표출은 회피적/부정적 정서·행동 표출, 역기능적 의사소통, 회피/철회 및 간접적 조종과 같은 이별전략과 정적 상관을 보여, 관계 갈등 상황에서의 방어적·공격적 반응을 반영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예: 역기능적 의사소통-거리두기  $r = .59$ , 간접적 조종-거리두기  $r = .54$ ,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부정성 표출  $r = .60$ ).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에서도 이론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는데, 신경증은 거리두기 및 부정성 표출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친화성은 긍정적 수습 및 이성적 대처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예: 신경증-부정성 표출  $r = .46$ ).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사회적 바람직성은 이성적 대처와 정적, 거리두기 및 부정성 표출과 부적 상관을 보여, 응답 경향의 영향이 하위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관

표 5. 최종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 문항

요인	번호	내용
긍정적 수습 (9문항)	9	연인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휴대전화 앱으로 깜짝 선물을 보내며 애정을 표현한다.
	11	연인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왜 화가 났는지 물어본다.
	22	갈등 완화를 위하여 이모티콘이나 특수문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31	연인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치며 안아주거나 뽀뽀한다.
	33	SNS에 게시된 재미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 연인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한다.
	42	연인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화해를 유도한다.
	43	대화 중간중간 연인을 웃겨주면서 화가 가라앉도록 한다.
	74	귀여운 말투를 사용하면서 애교 부린다.
거리두기 (7문항)	4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회피한다.
	20	대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27	대화 주제를 갈등과 관련 없는 다른 주제로 전환한다.
	38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식으로 대화를 미룬다.
	47	연인에게 먼저 문자나 메신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55	당분간 서로 연락하지 말고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다.
	73	대화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다린다.
심사숙고 (6문항)	5	연인에게 서운하거나 실망한 점을 혼자 글로 적어본다.
	6	친구나 지인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내 생각을 정리한다.
	18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SNS 게시물 등을 검색한다.
	45	휴대전화 메모장에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적어둔 후 수정하고 확인해서 보낸다.
	58	손 편지에 내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
71	연인이 내 입장을 이해하도록 생각이 잘 정리된 장문의 문자나 메신저를 보낸다.	
순종 (4문항)	3	다툼을 끝내기 위해 연인이 하자는 대로 한다.
	15	저자세를 취하며 연인에게 맞춰준다.
	39	관계가 더 틀어질까 봐 말없이 참고 넘어간다.
75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연인의 화가 풀리도록 노력한다.	
이성적 대처 (3문항)	59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를 이해해 달라고 부탁한다.
	65	갈등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
	72	연인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시킨다.
부정성 표출 (3문항)	10	연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은근히 서운한 티를 낸다.
	13	내 얘기를 제대로 들으라는 식으로 언성을 높인다.
	34	연인에게 문자나 메신저를 보내면서 내 안에 쌓인 불만을 토로한다.

표 6.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 하위요인 간 상관

	1	2	3	4	5	6
1. 긍정적 수습	—					
2. 거리두기	.25***	—				
3. 심사숙고	.33***	.29***	—			
4. 순종	.38***	.36***	.25***	—		
5. 이성적 대처	.37***	-.03	.20***	.21***	—	
6. 부정성 표출	.13*	.29***	.24***	.01	.06	—

주.  $N = 300$ . \*  $p < .05$ . \*\*\*  $p < .001$ .

표 7.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긍정적 수습	거리두기	심사숙고	순종	이성적 대처	부정성 표출
내적 합치도	.81	.78	.76	.67	.75	.73
검사-재검사 신뢰도	.66	.62	.63	.74	.64	.60

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개념적으로 구별되면서도 관련 변인들과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며,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이 하위요인별로 상이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는 본 척도가 단순한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이 아니라, 갈등대처의 질적 차이를 포착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 준거타당도 검증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및 정신건강 준거변인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표 9), 이성적 대처는 연인관계 만족도( $r = .22$ )와 안정성( $r = .18$ ), 행복( $r = .19$ )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 $r = -.17$ )과 불안( $r = -.14$ )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대로, 거리두기는 관계 만족도( $r = -.44$ )

및 안정성( $r = -.47$ )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우울( $r = .36$ )과 불안( $r = .38$ )과는 정적 상관을 보여, 관계 기능 저하 및 부정적 정서와 연결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성 표출과 심사숙고 역시 전반적으로 관계 준거와는 부적, 우울·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보여(예: 부정성 표출-불안  $r = .28$ ; 심사숙고-불안  $r = .21$ ), 비적응적 대처와 정신건강 위험 간의 관련성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가 연인관계의 질과 심리적 적응 수준을 의미 있게 반영하는 준거타당도를 지님을 보여준다.

#### 중분타당도 검증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의 중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인관계 만족도와 연인관계 안정성에 대해 기존 갈등해결전략 척도(Rahim, 1983)의 5개 하위요인(회피, 지배, 타협, 양보,

표 8.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

		긍정적 수습	거리 두기	심사 숙고	순종	이성적 대처	부정성 표출
갈등해결 전략	회피	.18**	.49***	.20***	.46***	.13*	.04
	지배	.15*	.38***	.16**	-.06	.04	.25***
	타협	.25***	-.22***	.14*	-.01	.63***	-.01
	양보	.25***	-.10	.12*	.43***	.47***	-.05
	통합	.17**	-.42**	.05	-.05	.56***	-.09
갈등대처 전략	이성적 대처	.12*	-.35***	.03	.05	.52***	-.07
	긍정적 감정표현	.74***	.16**	.27***	.45***	.44***	-.01
	회피	.27***	.66***	.34***	.53***	.00	.16**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02	.33***	.09	-.17**	-.22***	.60***
의사소통	공감	.13*	-.36***	.03	.06	.46***	-.13*
	건설적 의사소통	.10	-.40***	-.11	-.10	.33***	-.07
	역기능적 의사소통	.09	.59***	.21***	.19**	-.18**	.29***
이별전략	회피/철회	.01	.30**	.17**	.04	.02	.22***
	간접적 조종	.26***	.54***	.30***	.23***	-.04	.19**
	직면	.02	.03	.18**	-.19**	.11*	.09
	긍정적 어조/자기비난	.27***	.22***	.23***	.32***	.13*	-.01
성격	신경증	.03	.25***	.14*	-.06	-.14*	.46***
	친화성	.28***	-.02	.18**	.15*	.29***	.13*
사회적 바람직성		.10	-.28***	-.07	.06	.30***	-.19**

주. N = 300. \*p < .05. \*\*p < .01, \*\*\*p < .001.

표 9. 준거타당도 검증

	긍정적 수습	거리두기	심사숙고	순종	이성적 대처	부정성 표출
연인관계 만족도	.10	-.44***	-.16**	-.01	.22***	-.21***
연인관계 안정성	.10	-.47***	-.24***	-.06	.18**	-.27***
행복	.11	-.24***	-.09	.05	.19**	-.26***
우울	-.05	.36***	.12*	.08	-.17**	.27***
불안	.07	.38***	.21***	.10	-.14*	.28***

주. N = 300. \*p < .05, \*\*p < .01, \*\*\*p < .001.

통합)을 통제변인으로 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인관계 갈등대처의 영향은 5.0% ( $\Delta R^2 = .050, p < .001$ )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 = 21.40, p < .001$ ). 긍정적 수습 ( $\beta =$

.18,  $p < .001$ )은 정적, 거리두기 ( $\beta = -.16, p < .05$ )와 심사숙고 ( $\beta = -.12, p < .05$ )는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였다. 연인관계 안정성에서는 10.0% ( $\Delta R^2 = .100, p < .001$ )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F = 20.89, p < .001$ ), 긍정적 수습 ( $\beta = .24, p < .001$ )은 정적, 거리두기 ( $\beta = -.19, p < .01$ ), 심사숙고

표 10. 연인관계 만족도, 연인관계 안정성에 대한 연인관계 갈등대처의 위계적 회귀분석

기준변인	단계	변인	B	SE	$\beta$	t	F	R <sup>2</sup>	$\Delta R^2$
연인관계 만족도	1	회피	-.14	.06	-.13	-2.35*	39.20***	.400	.400***
		지배	-.26	.04	-.29	-5.78***			
		타협	-.13	.09	-.11	-.146			
		양보	.17	.06	.16	2.65**			
		통합	.48	.09	.44	5.29***			
	2	긍정적 수습	.19	.06	.18	3.41***	21.40***	.450	.050***
		거리두기	-.17	.07	-.16	-2.54*			
		심사숙고	-.13	.05	-.12	-2.48*			
		순종	-.03	.06	-.03	-.59			
		이성적 대처	.00	.07	.00	.07			
부정성 표출	-.05	.05	-.06	-1.16					
연인관계 안정성	1	회피	-.22	.06	-.19	-3.43***	30.90***	.344	.344***
		지배	-.29	.05	-.31	-5.87***			
		타협	-.07	.10	-.05	-.67			
		양보	.05	.07	.04	.70			
		통합	.43	.10	.38	4.32***			
	2	긍정적 수습	.27	.06	.24	4.51***	20.89***	.444	.100***
		거리두기	-.21	.07	-.19	-2.98**			
		심사숙고	-.21	.05	-.19	-3.85**			
		순종	.01	.06	.01	.13			
		이성적 대처	.03	.07	.03	.48			
부정성 표출	-.11	.05	-.11	-2.25*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 $\beta = -.19, p < .01$ ), 부정성 표출( $\beta = -.11, p < .05$ )은 부적 영향이 유의하였다(표 10).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가 기존 갈등해결전략을 통제된 이후에도 연인관계의 질을 유의하게 설명함으로써, 청년의 연인관계 갈등대처를 보다 정교하게 포착하는 고유한 설명력을 지님을 시사한다.

## 논 의

본 연구는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연인관계 갈등 상황에서 사용되는 대처행동을 탐색하고, 실제 경험에 기반한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척도는 총 6요인, 32문항(긍정적 수습, 거리두기, 심사숙고, 순종, 이성적 대처, 부정성 표출)으로 구성된 구조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요인 구조는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두는 관심의 수준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달라진다는 이중관심 이론(Dual Concerns Theory; Blake & Mouton, 1964)을 경험적으로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이성적 대처는 자신과 연인 모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관계중심적 전략에 해당되며, 거리두기는 자신과 관계 모두에 대한 관심이 낮은 회피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부정성 표출은 자신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연인이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낮은 자기중심적 대처를 반영하고, 순종은 자신보다 연인과 관계를 우선시하는 연인중심적 대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인관계 맥락에서 이중관심 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Schapp et al., 1988)의 분류와도 일관된다. 즉, 본 연구는 연인관계 갈등대처를 단일 차원이 아닌 관계적 관심의 방향성과 수

준에 따라 구조화함으로써, 연인관계 갈등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긍정적 수습과 심사숙고 요인은 이중관심 이론의 자기-타인 관심의 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두 요인은 표면적으로는 관계중심적 대처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제 행동 수준에서는 자기 지향적 요소가 함께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 수습은 애정 표현이나 유머 등을 통해 갈등 상황의 분위기를 완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 유지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행동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불편한 정서를 완화하거나 심리적 긴장을 낮추려는 자기조절적 기능을 내포할 수 있다. 심사숙고 역시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관계중심적 특성을 가지지만, 실제 문항 내용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한 뒤 반응하려는 자기 보호적 과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두 요인이 단순히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관심의 방향만으로 구분되기보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와 개인의 정서 조절 및 자기안정화 욕구가 동시에 반영된 복합적인 대처 방식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맥락에서의 대인 갈등을 전제로 제안된 이중관심 이론이 친밀성과 정서적 유대가 핵심이 되는 연인관계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 수습 요인은 상호의존이론(Interdependence Theory)과 순응과정이론(Theory of Accommodation Process)의 관점에서 보다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 상호의존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관계의 장기적 가치를 고려해 행동하며(Rusbult & Arriaga, 1997), 관계가 심화될수록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다(Braiker & Kelley, 1979). 실제로 본 연구의 긍정적 수습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선물이나 애정 표현, 신체적 접촉, 분위기 전환 등 갈등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작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행동을 반영한다. 이러한 행동은 일방적인 노력처럼 보일 수 있으나, 관계 유지와 장기적 관계 가치를 고려한 능동적인 관계 지향적 투자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순응과정이론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부정적인 행동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 관계 유지를 위해 보다 친사회적 반응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때 관계에 대한 헌신(commitment)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Rusbult et al., 1991). 즉, 헌신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은 순간적인 정서적 충동이나 보복적 반응을 억제하고 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정하게 된다. 실제로 국내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성관계 헌신은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관계성 욕구의 충족은 이성관계 헌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채지은, 박정윤, 202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 수습은 단순한 양보라기보다 관계 유지와 회복을 지향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수습은 갈등 상황에서 연인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관계 회복을 촉진하는 보호적 행동으로서, 특히 헌신 수준이 높은 연인관계에서 기능적인 대처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심사숙고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 이론(Transactional Theory of Stress and Coping)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 (1984)에 의하면,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지(1차 평가)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2차 평가)에 따라 대처 방식이 달라진다. 연인 갈등을 위협적으로 인식할 경우, 개인은 상황을 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사고를 정리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하게 되며, 이는 심사숙고 요인의 핵심적 특징과 일치한다. 실제 문항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탐색과 같은 문제중심 대처(예: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SNS 게시물 등을 검색한다”) 뿐 아니라 감정을 글로 정리하는 정서중심 대처(예: “연인에게 서운하거나 실망한 점을 혼자 글로 적어본다”)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심사숙고가 단일한 대처 유형이라기보다, 갈등 상황에서 인지적 자원을 활용해 정서와 문제를 동시에 조절하려는 통합적 대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심사숙고는 갈등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내적 경험을 성찰한 뒤 대응하려는 신중한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타당도 검증 결과, 심사숙고는 적응적으로 여겨지는 대처전략(타협, 양보)과 부적응적으로 여겨지는 대처전략(회피) 두 가지 모두와 관련되는 양상을 보여 적응적 전략으로만 보기 어려운 복합적 대처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반추 연구에서 숙고(reflection)가 상황에 따라 적응적이거나 중립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Miranda & Nolen-Hoeksema, 2007; Treynor et al., 2003)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준거타당도 분석에서 심사숙고

가 관계 만족도 및 관계 안정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인지적·정서적 처리 과정이 실제 관계에서는 항상 적응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심사숙고는 이후 명료한 의사소통이나 문제 해결로 연결될 경우에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사고 수준에 머물러 행동적 해결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서적 거리두기나 반복적 사고가 강화되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심사숙고는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전략으로 이분화하기보다, 이후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는 과정 중심적 대처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척도에서는 기존 갈등대처 척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디지털 소통 맥락이 문항 도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되었다. 최종 문항에는 메신저, 문자메시지, 소셜 미디어(SNS), 이모티콘,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상호작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스마트폰 보급 이후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된 현대적 관계 환경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황하성 외, 2011; Coyne et al., 2011). 특히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매체가 활용되는 방식이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 수습에서는 연인의 긍정정서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사숙고에서는 신중한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로, 거리두기와 부정성 표출에서는 각각 소극적 회피와 불만 표출의 방식으로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척도들(예: 김지현, 2006)이 포착하지 못했던 현대적 의사소통 맥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척도가 동시대 청년의 갈등대처 행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긍정적 수습

요인의 “귀여운 말투를 사용하면서 애교 부린다” 문항은 한국 문화의 관계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애교는 영어권 문화에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개념이 없어 그대로 ‘aegyo’라는 용어 하에 연구되고 있으며(Puzar & Hong, 2018), 친밀한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돌봄과 애정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Jang, 2021). 이러한 점에서 본 문항은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적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려는 한국적 상호작용 방식을 반영하며, 본 척도가 문화적 맥락에 민감하게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각 하위요인의 타당도 검증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존 갈등대처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관된 패턴을 보였으며, 일부 요인에서는 기존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어 왔던 특성이 확인되었다. 먼저 긍정적 수습은 김지현(2006)이 재구성한 척도의 긍정적 감정표현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준거타당도 분석에서는 관계 만족도, 관계 안정성, 행복, 우울, 불안과의 단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증분타당도 분석에서는 기존 갈등해결 전략(ROCI-II)을 통제한 이후에도 연인관계 만족도와 안정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수습이 기존 갈등대처 척도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았던 고유한 설명력을 지니며, 다른 대처방식과 결합될 때 관계의 질을 증진시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반면 거리두기는 관계 만족도, 관계 안정성, 행복과 부적 상관을, 우울 및 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보여, 회피적 대처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정지현, 권석만, 2013; Elliot et al., 1997)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이성적 대처는 관계 만족도, 관계 안정성, 행복과는 정적 상관, 우울 및 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본 척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응적인 대처 방식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정성 표출은 ROCI-II(Rahim, 1983)의 지배 요인 및 김지현(2006) 척도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만 본 척도의 부정성 표출은 무차별적인 공격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고자 하는 정서적 표현’에 가까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친화성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부정성 표출이 단순한 파괴적 반응이 아니라, 관계 내 정서적 신호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중 친화성과 신경증에 초점을 두어, 이들 변인이 연인관계 갈등대처의 하위요인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친화성은 거리두기를 제외한 네 요인(긍정적 수습, 순종, 이성적 대처, 심사숙고)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해당 요인들이 관계 유지와 상호 조화를 지향하는 대처방식이라는 점에서, 친화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과 상호 조화를 중시한다는 기존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Graziano et al., 2007). 한편 친화성은 부정성 표출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본 척도의 부정성 표출 문항이 무차별적 공격(예: 욕설, 모욕)보다는 ‘이해받고 싶은 동기(wanting to be heard)’에서 비롯된 정서 표현(예: 서운함을 은근히 드러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지현, 2006). 즉, 친화성이 높은 개인의 경우,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관계 유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반면 신경증은 긍정적 수습과 순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부정성 표출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신경증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불안정성이 크고(Costa & McCrae, 1992), 갈등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부정적 정서 반응이 강화된다는 선행연구(Gunthert et al., 1999)와 일치한다. 또한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충동적·공격적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 결과(Antonioni, 1998; McCrae & Costa, 1987; Moberg, 2001)를 지지하는 것으로, 본 척도가 성격 특성과의 이론적 연관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인관계 갈등 연구에서 활용되어 온 일부 척도는 개발 시점이 오래되어, 현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갈등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30대 청년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현대적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대처 행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특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소통 양상이 문항에 반영되었다는 점은 기술 환경 변화가 관계 역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척도는 청년기 연인관계 맥락에서 나타나는 갈등대처 행동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특히 연령대(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와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함으로써, 청년기의 다양한 관계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갈등대처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해외 척도의 번안·수정에 의존하거나 제한적인 신뢰도 검증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국내 청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고 신뢰

도 및 타당도를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갈등대처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적 기반을 확장하였다. 셋째, 내적 구조 검증 과정에서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 Asparouhov & Muthén, 2009)을 적용하여 전통적 EFA나 CFA가 갖는 제약을 보완하고, 요인간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갈등대처의 다차원적 구조를 보다 유연하고 정교하게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넷째, 본 척도는 학술 연구뿐 아니라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 연인관계 갈등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대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입 목표(예: 의사소통 방식 조정, 정서 조절 강화, 관계 유지 전략 탐색)를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갈등대처는 관계 단절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대처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방적 관점에서 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사회적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는 20-30대 청년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갈등대처 행동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다. 그러나 일부 하위요인(예: 이성적 대처, 부정성 표출)은 문항 수가 비교적 적어 개인차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요인의 문항을 보완·확장하고, 문항 난이도와 변별력을 고려한 정교한 문항 정제 과정을 통해 측정 범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

한 횡단 연구로, 척도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과 준거변인과의 관계에서 인과 방향을 명확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갈등대처 방식이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뿐 아니라, 반대로 당시의 정서 상태가 갈등대처 방식의 보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독립 표본을 활용한 교차타당도 검증과 함께 종단 설계를 적용하여, 갈등대처와 심리적·관계적 결과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재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관계 맥락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본 특성상 현재 연애 경험이 없거나 관계가 불안정한 집단에는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표본의 성적 지향 분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계 유형과 성적 지향을 포함한 표집을 통해 결과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자기보고에 기반하여 갈등대처를 측정하였으나, 연인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체계이므로 한 개인의 대처는 상대의 반응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인 단위 자료를 수집하거나, 상대가 지각한 대처 행동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척도의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년의 실제 관계 경험을 기반으로 연인관계 갈등대처를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로 정교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기존 척도들이 충

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현대적 관계 맥락과 디지털 소통 환경을 고려하여 갈등대처의 다차원적 구조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심화하였다. 또한 본 척도는 연인관계의 역동을 보다 미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관계 교육, 상담 개입,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고수연, 박정윤 (2024). 부부의 외현적 자기에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의존 매개효과: APIMeM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0(3), 299-319.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의 애착이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조민아 (2017).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연인관계에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8(2), 181-202.
- 김윤아 (2019). 미혼 성인 남녀의 성장믿음과 관계만족도에서 관계진술성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2018). 성인애착유형, 갈등해결전략, 조망수용능력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6). 조망수용, 관계귀인, 갈등대처 행동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 오은주 (202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의 연인관계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2), 1557-1572.
- 문희정, 안현의 (202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EO 성인용 성격 검사 단축형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9(11), 535-561.
-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BSI-18)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2), 507-521.
-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Rasch 모형을 이용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DS-9)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6(6), 177-197.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안창현, 김진이 (2008).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및 가족 응집성·적응성과 갈등대처방식간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16(2), 95-114.
- 안현의, 안창규 (2017). NEO 성격 검사-전문가 지침서. 인사이트.
- 연수진, 서수균 (2013). 이성관계에서 안정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411-428.
- 유희남, 김영희 (2011).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41-158.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19(1), 163-184.
- 이상림 (2018). 미혼인구의 결혼 관련 태도. *보건복지포럼*, 268, 6-18.
- 이순목,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 탐색적 요인분석: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17-255.
- 이정은 (1998).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열, 이영호 (2017). 커플 관계에서의 공감: 이자간 공감 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739-766.
- 이지연, 서수균 (2011). 비합리적 신념과 이성 관계만족 사이에서 부적응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75-791.
- 임아영 (2022). 커플관계에서의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의 적응적 기능: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개발 및 웹 기반 다름 수용 프로그램 효과 검증.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희 (2004). 원가족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현, 권석만 (2013). 고통 감내력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 탈중심화와 회피적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627-647.
- 조유리, 김경신 (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광주지역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채지은, 박정운 (2021). 초기 성인기의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305-323.
- 최규련 (1994). 가족 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유진, 정태연 (2021). 연인 간 갈등 상황에서 존댓말의 사용이 정서 관련 변인과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 융합*, 43(5), 807-829.
- 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김태우 (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19*.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학지사.
- 통계청 (2023). *인구동향조사 혼인건수 및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https://kosis.kr>.
-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2011). 이용자 속성 및 기능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5(2), 277-313.
- Antonioni, D. (1998).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9(4), 336-355. <https://doi.org/10.1108/eb022814>
- Arellano, C. M., & Markman, H. J. (1995). The 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s Scale (MADS): A self-report measure assessing conflict management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3), 319-334. <https://doi.org/10.1037/0893-3200.9.3.319>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sparouhov, T., & Muthén, B. (2009).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3), 397-438.  
<https://doi.org/10.1080/10705510903008204>
- Baxter, L. A. (1982). Strategies for ending relationships: Two studies. *The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4(3), 223-241.  
<https://doi.org/10.1080/10570318209374082>
- Blake, R., & Mouton, J. (1964). *The managerial grid: Key orientations for achieving production through people*. Gulf Publishing.
- Braiker, H. G., & Kelley, H. H. (1979).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R. L. Burgess & T. L. Huston (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pp. 135-168). Academic Press.
- Cahn, D. D. (1992). *Conflict in intimate relationships*. Guilford Press.
- Carver, C. S. (1997). You want to measure coping but your protocol's too long: Consider this Brief C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92-100.  
[https://doi.org/10.1207/s15327558ijbm0401\\_6](https://doi.org/10.1207/s15327558ijbm0401_6)
- Christensen, A., & Heavey, C. L. (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73-81.  
<http://doi.org/10.1037//0022-3514.59.1.73>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NEO PI-R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ello, A. B., & Osborne, J. W.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0(7), 1-9.  
<https://doi.org/10.7275/jyj1-4868>
- Courtain, A., & Glowacz, F. (2019). Youth's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their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2), 256-268.  
<https://doi.org/10.1007/s10964-018-0930-6>
- Coyne, S. M., Stockdale, L., Busby, D., Iverson, B., & Grant, D. M. (2011). "I luv u :)!": A descriptive study of the media use of individuals in romantic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60(2), 150-162.  
<https://doi.org/10.1111/j.1741-3729.2010.00639.x>
- Cristobal, E., Flavian, C., & Guinaliu, M. (2007). Perceived e-service quality (PeSQ): Measurement validation and effects on consumer satisfaction and web site loyalty. *Managing Service Qu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17(3), 317-340.  
<https://doi.org/10.1108/09604520710744326>
- Derogatis, L. R. (1993). *Brief Symptom Inventory (BSI)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3rd ed.). Pearson.
- Derogatis, L. R., & Savitz, K. L. (2000). The SCL-90-R and Brief Symptom Inventory (BSI) in primary care. In M. E. Maruish (Ed.), *Handbook of psychological assessment in primary care settings* (pp. 297-33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erogatis, L. R., & Spencer, P. M. (1993). *Brief Symptom Inventory: BSI* (Vol. 18). Pearson.
- DeVellis, R. F. (2016).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4th ed.). Sage.
- Elliot, A. J., Sheldon, K. M., & Church, M. A. (1997). Avoidance person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Bulletin*, 23(9), 915-927.  
<https://doi.org/10.1177/014616729723900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1st ed.). W. W. Norton.
- Ferrando, P. J., & Lorenzo-Seva, U. (2017). Program FACTOR at 10: Origins, development and future directions. *Psicothema*, 29(2), 236-240.  
<https://doi.org/10.7334/psicothema2016.304>
- Fincham, F. D., & Cui, M. (Eds.). (2010). *Romantic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ttman, J. M. (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6-15.  
<https://doi.org/10.1037/0022-006X.61.1.6>
- Graziano, W. G., Habashi, M. M., Sheese, B. E., & Tobin, R. M. (2007). Agreeableness, empathy, and helping: A person  $\times$  situation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4), 583-599.  
<https://doi.org/10.1037/0022-3514.93.4.583>
- Gunther, K. C., Cohen, L. H., & Armeli, S. (1999). The role of neuroticism in daily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5), 1087-1100.  
<https://doi.org/10.1037//0022-3514.77.5.1087>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9). *Multivariate data analysis* (8th ed.). Cengage.
- Hobart, J., & Cano, S. (2009). Improving the evaluation of therapeutic interventions in multiple sclerosis: The role of new psychometric methods.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13(12), 1-177.  
<https://doi.org/10.3310/hta13120>
- Hong, J. (2006). Conflict management in an age of globalization: A comparison of intracultural and intercultural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between Koreans and U.S. Americans.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6, 168-201.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018>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James-Kangal, N., & Whitton, S. W. (2019). Conflict management in emerging adults' "nonrelationships". *Couple and Family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8(2), 63-76.  
<https://doi.org/10.1037/cfp0000118>
- Jang, H. (2021). How cute do I sound to you? Gender and age effects in the use and evaluation of Korean baby-talk register, aegyo. *Language Sciences*, 83, 101289.  
<https://doi.org/10.1016/j.langsci.2020.101289>
- Kline, P.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 Kwok, I., & Wescott, A. B. (2020). Cyberintimacy: A scoping review of technology-mediated romance in the digital ag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3(10), 657-666.  
<https://doi.org/10.1089/cyber.2019.0764>
- Laurenceau, J., Troy, A. B., & Carver, C. S. (2005). Two distinct emotional experiences in

- romantic relationships: Effects of perceptions regarding approach of intimacy and avoidance of confli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8), 1123-1133.  
<https://doi.org/10.1177/014616720527444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 Lebow, J. L., Chambers, A. L., Christensen, A., & Johnson, S. M. (2012). Research on the treatment of couple distres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8(1), 145-168.  
<https://doi.org/10.1111/j.1752-0606.2011.00249.x>
- Lee, D.-G., Sohn, H., Bae, B., & Song, Y. (2018). Validity of the Breakup Strategies Questionnaire in Korea: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asch modeling. *Psychological Reports*, 121(1), 161-183.  
<https://doi.org/10.1177/0033294117720936>
- Li, J. (2003). US and Chinese cultural beliefs about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2), 258-267.  
<https://doi.org/10.1037/0022-0663.95.2.258>
- Lynn, M. R. (1986).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35(6), 382-386.  
<https://doi.org/10.1097/00006199-198611000-00017>
- Marsh, H. W., Muthén, B., Asparouhov, T., Lüdtke, O., Robitzsch, A., Morin, A. J. S., & Trautwein, U. (2009).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tegrating CFA and EFA: Application to students' evaluations of university teach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6(3), 439-476.  
<https://doi.org/10.1080/10705510903008220>
- Mayer, B. (2000). *The dynamics of conflict resolution: A practitioner's guide*. Jossey-Bass.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81-90.  
<https://doi.org/10.1037/0022-3514.52.1.81>
- Miranda, R., & Nolen-Hoeksema, S. (2007). Brooding and reflection: Rumination predicts suicidal ideation at 1-year follow-up in a community samp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12), 3088-3095.  
<https://doi.org/10.1016/j.brat.2007.07.015>
- Moberg, P. J. (2001). Linking conflict strategy to the five-factor model: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2(1), 47-68.  
<https://doi.org/10.1108/eb022849>
- Mulaik, S. A. (2010). *Foundations of factor analysis* (2nd ed.). Chapman & Hall.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2). *Mplus user's guide* (7th ed.). Muthén & Muthén.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 Podsakoff, N. P. (2012). Sources of method bias in social science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on how to control i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3, 539-569.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120710-100452>
- Puzar, A., & Hong, Y. (2018). Korean cuties: Understanding performed winsomeness (aegyo) in South Korea. *The Asia Pacific Journal of Anthropology*, 19(4), 333-349.

- <https://doi.org/10.1080/14442213.2018.1477826>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2), 368-376.  
<https://doi.org/10.5465.255985>
- Reese-Weber, M., Kahn, J. H., & Nemecek, R. (2015). Topics of conflict in emergi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Emerging Adulthood*, *3*(5), 320-326.  
<https://doi.org/10.1177/2167696815592728>
- Rosch, E. (1978).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In B. Aarts, D. Denison, E. Keizer, & G. Popova (Eds.), *Fuzzy grammar: A reader* (pp. 91-108). Oxford University Press.
- Rusbult, C. E., & Arriaga, X. B. (1997). Interdependence theory. In S. Duck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pp. 221-250). John Wiley & Sons.
- Rusbult, C. E., Verette, J., Whitney, G. A., Slovik, L. F., & Lipkus, I. (1991). Accommodation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Theory and preliminary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1), 53-78.  
<https://doi.org/10.1037/0022-3514.60.1.53>
- Sanford, K. (2007). Hard and soft emotion during conflict: Investigating married couples and other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4*(1), 65-90.  
<https://doi.org/10.1111/j.1475-6811.2006.00142.x>
- Schade, L. C., Sandberg, J., Bean, R., Busby, D., & Coyne, S. (2013). Using technology to connect in romantic relationships: Effects on attachm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tability in emerging adults. *Journal of Couple and Relationship Therapy*, *12*(4), 314-338.  
<https://doi.org/10.1080/15332691.2013.836051>
- Schapp, C., Buunk, B., & Kerkstra, A. (1988). *Marital conflict resolution*. In P. Noller, & M. A. Fitzpatrick (Eds.), *Perspective on marital interaction* (pp. 203-244). Multilingual Matters.
- Shulman, S., & Connolly, J. (2013). The challenge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hood: Reconceptualization of the field. *Emerging Adulthood*, *1*(1), 27-39.  
<https://doi.org/10.1177/2167696812467330>
- Siegert, J. R., & Stamp, G. H. (1994). "Our first big fight" as a milestone in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Communication Monographs*, *61*(4), 345-360.  
<https://doi.org/10.1080/03637759409376342>
- Smock, P. J., & Schwartz, C. R. (2020). The demography of families: A review of patterns and 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2*(1), 9-34.  
<https://doi.org/10.1111/jomf.12612>
- Stanley, S. M., Markman, H. J., & Whitton, S. W. (2002).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Insights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success from a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41*(4), 659-675.  
<https://doi.org/10.1111/j.1545-5300.2002.00659.x>
- Stöber, J.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3), 222-232.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https://doi.org/10.1177/019251396017003001>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1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7th ed.). Pearson.
- Timmerman, M. E., & Lorenzo-Seva, U. (2011). Dimensionality assessment of ordered polytomous items with parallel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6(2), 209-220.  
<https://doi.org/10.1037/a0023353>
- Ting-Toomey, S. (1985). Toward a theory of conflict and culture. In B. W. Gudykunst, P. L. Stewart, & S. Ting-Toomey (Eds.), *Communication, culture, and organizational processes* (pp. 71-86). Sage.
- Treynor, W., Gonzalez, R., & Nolen-Hoeksema, S. (2003). Rumination reconsidered: A psychometric analy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3), 247-259.  
<https://doi.org/10.1023/A:1023910315561>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 Whisman, M. A., & Unbelacker, L. A. (2006). Impairment and distress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discord in a national sample of married or cohabiting adul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3), 369-377.  
<https://doi.org/10.1037/0893-3200.20.3.369>
- Willoughby, B. J., & Hall, S. S. (2015). Enthusiasts, delayers, and the ambiguous middle: Marital paradigms among emerging adults. *Emerging Adulthood*, 3(2), 123-135.  
<https://doi.org/10.1177/2167696814548478>
- Wilmot, W. W., & Hocker, J. L. (2001). *Interpersonal conflict* (6th ed.). McGraw-Hill.

논문 투고일 : 2026. 01. 07

1 차 심사일 : 2026. 02. 19

게재 확정일 : 2026. 03. 26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omantic Relationship Conflict Coping Scale(RRCCS)

<b>Jin Hwa Kim</b>	<b>Byeong Hoon Bae</b>	<b>Dongjae Park</b>	<b>Dong-gwi Lee</b>
Yonse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measuring conflict coping behaviors in romantic relationships. An open-ended survey was conducted with 100 individuals in their 20s and 30s who had been in a romantic relationship for at least three months, yielding 269 statements. Prototype analysis and two rounds of expert content validation resulted in a 75-item preliminary scale.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300 participants identified a final scale consisting of 32 items across six factors: positive repair, distancing, careful consideration, submission, rational coping, and expression of negativity. Especially, positive repair was interpreted as a proactive investment behavior for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dependence theory, whereas careful consideration reflected a cautious coping process involving both cognitive reflection and emotional processing that has not been sufficiently captured in existing scales. Each factor showed theoretically consistent correlations with existing conflict-related scales, empathy, communication, and personality traits. Criterion-related and incremental validity were supported us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tability as the criteria. A four-week test-retest reliability was also satisfactor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a Korean scale of conflict coping in romantic relationships that complements the cultural limitations of existing overseas measures and reflects contemporary communication contexts, including messenger and SNS interactions.

*Key words* : unmarried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 conflict coping, prototype analysis,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부 록**

연인관계 갈등대처 척도 최종 예비문항

번호	문항
1	격한 감정이 실린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화를 낸다.
2	연인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점에 대해 둘러대지 않고 지적한다.
3	다툼을 끝내기 위해 연인이 하자는 대로 한다.
4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회피한다.
5	연인에게 서운하거나 실망한 점을 혼자 글로 적어본다.
6	친구나 지인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내 생각을 정리한다.
7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의 잘못을 따져본다.
8	잘못한 점을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한다.
9	연인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휴대전화 앱으로 깜짝 선물을 보내며 애정을 표현한다.
10	연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은근히 서운한 티를 낸다.
11	연인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왜 화가 났는지 물어본다.
12	화가 나도 바로 표출하지 않고 평소의 어조와 태도를 유지한다.
13	내 얘기를 제대로 들으라는 식으로 언성을 높인다.
14	연인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15	저자세를 취하며 연인에게 맞춰준다.
16	우선 잠을 자고 나서 머릿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
17	혼자 생각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고민한다.
18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SNS 게시물 등을 검색한다.
19	연인과 서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한다.
20	대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21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시도한다.
22	갈등 완화를 위하여 이모티콘이나 특수문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23	연인의 기분이 좋을 때를 기다려 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24	연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
25	연인의 장점, 우리의 좋은 추억 등 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26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27	대화 주제를 갈등과 관련 없는 다른 주제로 전환한다.
28	연인의 의도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생각해 본다.

번호	문항
29	필요할 경우 연인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0	연인과 서로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만한 중간점을 찾아 합의한다.
31	연인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치며 안아주거나 뽀뽀한다.
32	연인의 주장에 반대되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제시한다.
33	SNS에 게시된 재미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 연인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한다.
34	연인에게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 안에 쌓인 불만을 토로한다.
35	연인의 처지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
36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는 말을 아낀다.
37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킨다.
38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식으로 대화를 미룬다.
39	관계가 더 틀어질까 봐 말없이 참고 넘어간다.
40	연인과 술 한잔하면서 먼저 가벼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내본다.
41	일방적인 대화가 되지 않도록 서로의 생각을 차례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42	연인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화해를 유도한다.
43	대화 중간중간 연인을 웃겨주면서 화가 가라앉도록 한다.
44	연인에게 내 감정이 왜 상하게 되었는지 이해시킨다.
45	휴대전화 메모장에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적어둔 후 수정하고 확인해서 보낸다.
46	내 방식대로 할 것을 강요한다.
47	연인에게 먼저 문자나 메시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48	게임, SNS, 동영상 등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
49	연인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한다.
50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하여 연인의 기분이 상하게 된 원인을 먼저 파악한다.
51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기분이 나빴는지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52	감정이 격해진 순간을 피한 후 다시 돌아와 차분하게 대화한다.
53	고쳐야 할 점을 제시하고 변화를 요구한다.
54	연인이 싫다고 하는 행동에 대해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55	당분간 서로 연락하지 말고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다.
56	갈등이 생긴 원인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57	문자나 메시지에 단답형으로 답하는 등 기분 상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다.
58	손 편지에 내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

(계속 2)

번호	문항
59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를 이해해 달라고 부탁한다.
60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려고 노력한다.
61	온전한 감정 전달을 위해 문자나 메신저보다는 연인과 통화를 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62	나도 사과하지만 연인에게도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63	연인의 연락처나 SNS 계정을 차단함으로써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한다.
64	먼저 연인의 생각을 들어본 후 해결책을 제안한다.
65	갈등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
66	연인을 먼저 설득하고 그래도 갈등이 지속되면 헤어지자고 한다.
67	연인의 바람을 들어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한다.
68	연인이 곁에 있어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
69	연인과 나의 욕구를 모두 충족할 만한 방안을 찾아본다.
70	귀여운 말투를 사용하면서 애교 부린다.
71	연인이 내 입장을 이해하도록 생각이 잘 정리된 장문의 문자나 메신저를 보낸다.
72	연인의 마음을 달래고 진정시킨다.
73	대화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다린다.
74	갈등 현장을 벗어나 분위기를 환기시킨다(예: 함께 드라이브 가거나 카페에 가서 대화).
75	자존심을 내려놓고 연인의 화가 풀리도록 노력한다.